

## 대학생의 연음 또는 비연음 영문 지각

### Students' Perception of Linked or Clear English Speech

황 선 이\* · 양 병 곤\*\*

Sunyi Hwang · Byunggon Ya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well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d linked or clear English speech and attempted to find areas of difficulty in their English listening caused by phonological variations. Thirty nine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listening sessions. They were divided into high and low groups by their TOEIC listening scores. Samples of linked speech included such phonological processes as linking, palatalization, flapping, and deletion.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had more problem perceiving linked speech than perceiving clear speech. Secondly, both the higher and the lower groups scored low on the linked speech. The lower group had more score difference between linked and clear speech. Thirdly, the students' scores increased from the speech with flapping, through deletion, palatalization, to linking. Finally, there w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TOEIC listening scores and the perception scores. Further studies would be desirable on the level of improvement of TOEIC scores by training the students' listening ability using the linked speech.

**Keywords:** linking, phonological variations, English listening, speech perception

####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 영어 듣기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듣기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각종 영어 시험에서도 듣기를 점차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영어 교실에서는 여전히 학습자들은 정상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녹음되고 또박또박하게 발화된 듣기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영어 듣기 학습 상황을 살펴보면, 연음 학습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적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듣기 교육은 주로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음이나 청자가 가진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예측을 하고 글의 종합적 의미를 파악하는 지도가 중심을 이루고, 듣기 시험을 위해 정답을 찾는 능력 배양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용 파악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년 이상 정상적인 영어 교육을 받은 대부분 사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람들은 듣기의 초보적 단계인 소리 식별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구어체의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년간 영어 학습을 하고도 실제 원어민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빠른 속도에서의 연음 현상에 따른 듣기 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연음은 영어에서 음과 음의 부드러운 연결, 영어 리듬의 형성, 말하기와 듣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연음에 의한 재음절화는 음절간 상호 작용으로 인한 음운 변화를 보이는 구개음화나 탄설음화, 탈락 등이 영문을 듣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유창하고 이해 가능한 발화 능력뿐만 아니라 구어체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연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시간을 적절히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Avery & Ehrlich, 1992). 연음에 대한 연구는 이해중심의 영어 학습 방법이 과연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시행되었고(Bailey 외, 1999; Simpson, 1992), 연음에서 기초적인 단어와 구문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일반적인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auer & Brown, 1992; Field, 2003). Ur(1997)은 자연스러운 구어의 청각적 요소에 익숙해지기 위해 실제 발화 상황을 반영한 듣기 자료를 듣는 연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음변화 법칙에도 듣기 시간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는데 빠른 속도로 발화할 때 일어나는 생략과 빈번한 음의 변화는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학생도 문법지식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영어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다양한 연구에서 드러났다(김준길, 1997; 송석요, 1997; 정경미, 2001). 일부는 연음 현상에 대한 이해와 영어 듣기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듣기 향상을 위해 연음 현상을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윤정희, 2002; 이순범, 2003; 김의순, 2002; 김한경, 2004; 정현철, 2004; 한안나, 199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음운론적 규칙을 소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듣기 부분에 실려 있는 연음 현상과 관련된 실례들의 분석에 국한하였다. 또, 통계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발화속도와 영어 듣기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와 발화 속도에 따라 음운 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실행되었다(이순범, 2003; 송석요, 1997). 따라서 학생들에게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영어 연음에 대한 지각 점수를 측정하는 오류 연구와 지도 영역에 대한 제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음 부분의 지각 점수에 대한 선행연구(정경미, 2001; 남은화, 2003; 유혜배, 2005; 김준길, 1997)가 실시되었으나, 실제로 연음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음 현상 이해도에 관한 연구와 연음 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과 학습자 개인의 영어와 연음에 대한 태도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지만, 본격적으로 취업을 위해 실무능력을 갖추려고 원어민과 대화를 시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김은지와 양병곤(2003)은 소음과 속도를 변화시킨 영어문장을 33 명의 대학생들에게 들려주어 따라하게 한 뒤 정확도를 점검해 본 결과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음이 많이 섞이고 문장이 길어질수록 대학생들의 듣기성적이 낮아짐을 보고했다. 이러한 낮은 성적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130 여 명이 대학생이 참가한 개별 자모음 구별 실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단어 구별 능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양병곤, 2005).

이 논문에서는 연음 현상이 학습자의 영어 수준에 따라 듣기점수에 어떤 결과를 보이며, 연음

변화 중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연음된 문장과 비연음된 문장의 듣기 점수와 영어 듣기 능력을 보여주는 토익 듣기 성적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듣기 과정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영어 듣기 교육 내용과 방법을 고안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방법

### 2.1 피험자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부산시의 한 대학 2, 3, 4 학년에 재학 중인 39 명의 대학생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학생들로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6 년간 영어를 배웠으며, 전공은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피험자들의 토익 성적 총점은 최저 450 점에서 최고 965 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고 피험자 전체의 토익 성적 총점 평균은 688 점이었다. 토익 듣기 점수는 최저 180 점에서 최고 495 점이고, 평균 점수는 338 점이었다. 분석의 편의상 피험자 집단을 토익 듣기 점수를 토대로 피험자 39 명을 절반으로 나누어 180~330 점에 속한 20 명을 하위집단으로, 340~495 점에 속한 19 명을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2.2 실험 도구

실험문장은 여러 연음 현상을 다루어 많은 사례를 실어 놓았고,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녹음된 자료의 음질이 다소 깨끗한 발음 교재(Fuksawa, 2004)에서 연음 현상의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문장을 발췌하였다. 각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는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피험자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실험 자료 제작 과정은 발음 교재에 따라온 테이프에서 175 개의 연음화된 영어문장을 선별하여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면서 컴퓨터의 Praat 음향분석 프로그램으로 16 bit, 22050 Hz의 표본속도로 저장하여 예비실험 듣기 음성 자료로 만들고 이를 임의의 순서로 뒤섞어 8 명의 대학생들에게 듣고 받아 적도록 하였다. 이들의 점수는 최종 연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전 실험에서 문항의 수가 많아 학생들은 시험 후반부에 시험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문 수도 적절하게 줄이고, 재음절화, 구개음화, 탄설음화, 축약 현상에서 40%~80%의 정답률을 가진 문항을 골랐다. 최종적으로 재음절화 20 문항, 구개음화 20 문항, 탄설음화 17 문항, 축약 20 문항으로 총 77 문항을 선택하였고 처음 3 문항은 적응을 하기위한 연습문항으로 채웠다. 비연음화된 녹음 자료는 부산시에 소재한 학원 강사로 한국에서의 거주 및 교수 기간이 2 년 정도인 호주인 남성에 게 일상속도로 발음하되 가능하면 외국인에게 말하듯이 또렷하게 발음해달라고 부탁하고, 조용한 방에서 MZ-R30(SONY) 미니디스크로 녹음하였다. 이를 Praat에 16 bit, 22050 Hz의 표본속도로 저장한 뒤, 연음화된 음성 파일 39 개와 비연음화된 음성 파일 38 개는 각각 문장 구성을 임의의 순서로 뒤섞어 테이프녹음기의 입력장치를 통해 하나의 지각실험용 테이프로 만들었고, 각 문제마다 학생들이 빈칸에 써넣을 수 있도록 7 초의 묵음구간을 두었다. 연음화된 음성 자료 재생은 9 분이 걸

리고, 비연음화된 음성 자료는 약 10 분이 걸렸다. 연음화된 문항에서도 재음절화는 파열음+모음, 마찰음+모음, /m, n, l/+모음, /r/+모음, 자음+/j/에서 각 2 문항씩 총 10 문항을 할당하였고, 구개음화는 마찰성 구개음화와 파찰성 구개음화에서 각 5 문항씩 총 10 문항, 탄설음화에서 단어 간에 일어나는 경우 5 문항과 단어 내에 일어나는 경우를 4문항으로 총 9문항, 마지막으로 탈락에서 모음 탈락 2 문항, /h/ 탈락 2 문항, 축약형 탈락 2 문항, 자음 탈락 4 문항으로 할당하였다. 비연음화된 문항에서도 위와 같이 문항을 배분하였는데 탄설음화에서는 단어 간에 일어나는 경우 5 문항을 할당하였고, 단어 내에 일어나는 경우는 3 문항을 배분하였다. 탄설음화에서 문항 수가 적은 이유는 어떤 문장은 탄설음화 현상이 2 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he bottle had a metal cap." 이란 문장에서 "bottle"과 "metal"의 탄설음화가 일어나고 마지막 l은 연구개음화된 성절음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문항이 2 개로 구분하고 각각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항 총점은 40 점이다. 각각 어휘 수준과 문장의 길이는 비슷하게 설정하였고, 문장 배열은 무작위 순서의 원칙을 따르되 같은 음운 변화의 문장이 연이어 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 2.3 자료 수집 및 통계 처리

자료 수집은 피험자마다 헤드폰으로 미리 제작한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각 문항에서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특정한 단어나 어구를 듣고 받아쓰게 하였다. 음량은 피험자마다 시험문항에서 조절하게 했다. 받아쓰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선다형의 문제에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답을 고르는 등의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즉, 문장을 정확히 듣지 못하면 정답을 쓸 수 없으므로 받아쓰기 방법은 피험자가 내용을 제대로 인지했는가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문항에서 의도한 정답 이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개별적인 점수를 연음 현상별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구했으며, 상·하위 집단별로 나누어 SPSS 12.0K로 통계 분석했다.

## 3. 연구 결과와 논의

### 3.1 문장 지각 점수

<표 1>은 피험자가 연음된 문장과 비연음 문장을 듣고 받아 적은 뒤 단어별로 바르게 지각한 점수와 비율을 보여준다.

표 1. 영어 문장 지각 점수 (총 39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정답수	정답율(%)
연음	16.41	8.84	1560	640	41
비연음	25.59	8.38		998	64

<표 1>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영어문장을 들을 때 비연음된 음성보다는 연음된 음성을 약 23% 정도 더 못 듣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TOEIC듣기 상위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하위집단이 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집단별 지각 점수

집단(명)	구분	평균(40)	표준편차	사례수	정답수	정답율(%)
상위(19)	연음	23.89	5.81	760	454	60
	비연음	31.95	5.42		607	80
하위(20)	연음	9.30	3.89	800	186	23
	비연음	19.55	5.81		391	49

상위집단의 정답률은 전체적으로 60%이고 하위집단의 정답률은 23%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연음된 문장에 대한 지각 점수의 편차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하위집단의 경우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연음된 문장에 대해서는 상위집단이 80%로 다소 높은 반면 하위집단은 거의 반에 가깝다. 상위집단의 연음문장과 비연음 문장의 듣기 비율차이는 20%인데 비해 하위집단은 26%를 나타내고 있어서, 하위집단일수록 연음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음이 듣기 이해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준길, 1997; 송석요, 1997; 정경미,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듣기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여러 연구(윤정희, 2002; 김의순, 2002; 김한경, 2004; 정현철, 2004; 한안나, 1997; 이순범, 2003; 송석요, 1997)를 지지해주고, 연음이 영어 듣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듣기 수업 시간에 연음에 대한 기본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2 연음 현상별 지각 점수

이번에는 각 연음 현상별로 나뉘서 정답율이 어떤지 <표 3>을 살펴보자.

표 3. 연음 현상별 지각 점수(인원 39 명)

연음 현상	구분	평균(10)	표준편차	사례수	정답수	정답율(%)
재음절화	연음	2.72	2.53	390	106	27
	비연음	6.41	2.66		250	64
구개음화	연음	4.15	2.63		162	42
	비연음	6.82	2.00		266	68
탄설음화	연음	5.02	2.28		196	50
	비연음	5.64	2.44		220	56
탈락	연음	4.51	2.49		176	45
	비연음	6.72	2.47		262	67

<표 3>에서 보면 390 개의 총 사례 수에서 우선 연습된 문장에서는 재음절화가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개음화와, 탈락, 탄설음화의 순서로 높아진다. 비연음 문장에서는 탄설음화가 가장 낮고, 이어서 재음절화, 탈락과 구개음화로 이어진다. 연습과 비연음화된 문장의 정답율 차이를 살펴보면 재음절화는 연습과 비연음 문장의 정답율에서 3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개음화는 26%이고 탈락은 22%, 탄설음화는 6%의 순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탄설음화는 단어 내에서 발음된 경우가 많아서 다른 현상에 비해 다소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재음절화는 두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들은 경우가 많아 점수가 많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유혜배(2005)의 축약(34.17%), 탈락(28.50%), 구개음화(21.50%), 탄설음화(20.70%), 재음절화(9.80%) 순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와 남은화(2003)의 탈락 56.9%, 동화현상(남은화의 연구에서는 구개음화, 탄설음화를 여기에 포함시켰음) 51.3%, 축약 40.4%, 재음절화 30.5% 순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와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는 실험에 참가한 원어던 발음에 익숙한 정도의 차이, 듣기 능력에 따른 집단 선정 기준,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듣기 능력의 차이, 또는 테스트 문항의 난이도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두 연구에서 재음절화 현상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결과가 일치한다.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실례들을 재음절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탄설음화, 그리고 동사와 연결하는 to의 축음 현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정경미, 2001)에서 재음절화가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교과서에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과, 현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연습 현상이 재음절화라는 결과는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어서 각 연습 현상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표 4>는 재음절화를 파열음+모음, 마찰음+모음, /m, n, l/+모음, /r/+모음, 자음+/j/으로 나누어서 연습된 문장과 비연음 문장의 점수를 보여준다.

표 4. 재음절화에 대한 듣기 점수(39 명)

재음절화	구분	사례수	정답수	정답율(%)
파열음+모음	연음	78	19	24
	비연음		53	68
마찰음+모음	연음		25	32
	비연음		67	86
/m, n, l/+모음	연음		20	26
	비연음		43	55
/r/+모음	연음		13	17
	비연음		37	47
자음+/j/	연음		29	39
	비연음		50	64

<표 4>에서 재음절화에 속하는 다섯 가지 현상 모두 연습 점수가 비연음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연습 듣기 테스트에서는 /r/+모음(17%), 파열음+모음(24%), /m, n, l/+모음(26%), 마찰음+모음(32%), 자음+/j/(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r/+모음이 일어나는 재음절화의 경우 가장 어려움을 보였는데, 이 소리는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비해 더 쉽게

연음되어 발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학생들이 들은 문장 가운데 “cup and”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coffee, cupboard, curtain, cotten” 등으로 적었고, “up on”을 “about, uppen” 등으로 적었는데, 이는 “cup and”와 “up on”을 새로운 하나의 단위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there any”라는 두 단어를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you, any, three, they”만 거의 받아 적었다. “beer in”은 /r/이 다음 단어로 옮겨가 초성처럼 들리는데 “building, beer, feeling, billing”으로 새로운 한 단어로 유추하여 적은 경우도 있었다.

<표 5>는 구개음화된 문장을 마찰성 구개음화와 파찰성 구개음화로 각 5 문항씩 총 10 문항으로 분리하여 정답율을 보여준다.

표 5. 구개음화에 대한 지각 점수(39 명)

구개음화	구분	사례수	정답수	정답율(%)
마찰성 구개음화	연음	195	77	39
	비연음		116	59
파찰성 구개음화	연음		85	44
	비연음		150	77

<표 5>에서 마찰성 구개음화와 파찰성 구개음화를 비교해본 결과 비연음에서는 파찰음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에서는 77%의 정답율을 보인데 비해 마찰성 구개음화는 그보다 약 18% 정도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연음에서는 모두 50% 이하의 점수로서 5%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전히 연음이 듣기에 어려움을 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받아 적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마찰성 구개음화의 예인 “is yet”은 “is at, isn’t”으로 잘못 받아 적었고, “house shakes”는 “how shakes, house shape”로, “his sharp”은 “he shut, he shocks”로 적었다. 파찰성 구개음화로는 “read your”는 read에서 끝자음 /d/가 뒤에 따라오는 /j/에 영향을 받아 /dʒ/처럼 바뀌는데, 학생들은 “lead your”로 적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l/과 /r/발음을 제대로 습득하지 않아서 나타난 오류가 있고, “at yourself”는 끝자음 /t/가 뒤에 따라오는 /j/에 영향을 받아 /tʃ/로 발음된 것인데, “at children, at chairs”와 같이 /tʃ/ 소리는 들었으나 나머지 소리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표 6>은 탄설음화된 문장을 단어 간과 단어 내로 분리하여 정답율을 보여준다.

표 6. 탄설음화에 대한 정답율(인원 39 명)

탄설음화	구분	사례수	정답수	정답율(%)
단어 간 탄설음화	연음	195	66	34
	비연음		86	44
단어 내 탄설음화	연음		130	67
	비연음		134	69

<표 6>에서 연습된 문장에서의 단어 내 탄설음은 정답율이 단어 간 탄설음화에 비해 거의 두 배의 점수를 보였다. 비연음된 문장에서는 약 25%의 차이를 보인다. 단어 간과 단어 내의 상호 비교를 보면 단어 간의 탄설음화가 50% 이하의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결국 여러 개의 단어들이 연습이 되어 새로운 한 단어처럼 들리는 경우가 대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받아 적은 예들을 살펴보면 “eat it up”을 “hitted up, enough”으로 듣거나, 많은 학생들이 완전한 듣기를 하지 못했다. “set aside”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약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와서 탄설음화가 일어나는데, 모음 /ə/가 앞 단어의 음절 말음 /t/와 새로운 약음절을 형성하여 마치 모음이 없는 것처럼 학생들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이다. “said, said side, set side” 등으로 받아 적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현상은 “aside”와 같이 첫음절이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듣지 못했고 두 번째 음절인 “side”로 인식했다. 단어 내 탄설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른 연습 현상에 비해 높은 정답률(69%)이 나왔지만, “shouting”을 “showing, shout, show him”으로 적기도 하고, “battle”을 “batter, bedroom”으로 적었고, “bottle”은 “battle, button”으로 적었는데 탄설음으로 연습해보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7>은 탈락현상을 각각 모음 탈락, 축약형 탈락, /h/ 탈락, 자음 탈락으로 나누어 정답율을 보여준다. 자음 탈락은 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 문항으로 구성된 다른 음운 현상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총 개수와 정답 개수를 반으로 다시 나누었다.

표 7. 탈락에 대한 정답율(인원 39 명)

재음절화	구분	사례수	정답수	정답율(%)
모음 탈락	연음	78	17	22
	비연음	78	61	78
/h/ 탈락	연음	78	35	45
	비연음	78	48	62
축약형 탈락	연음	78	60	77
	비연음	78	62	79
자음 탈락	연음	156(78)	64(32)	41
	비연음	156(78)	91(46)	58

<표 7>에서 축약형 탈락은 연음 정답 수가 60 개이고, 비연음 정답 수가 62 개로 비슷하게 조사되었지만, 다른 음운 현상들은 모두 연음개수가 비연음 개수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모음 탈락의 경우는 연음 개수가 17 개로 비연음 개수 61 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위의 4 가지 음운 현상의 정답율을 비교해 보면, 연음 테스트에서는 모음 탈락(22%), 자음 탈락(41%), /h/ 탈락(45%), 축약형 탈락(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응답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빈도수가 높은 낱말의 연결구인 “good and”에서 and의 약화된 /ə/발음이 탈락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good을 받아 적고 and를 적지 못하였다. “on his”는 강세가 오지 않는 약형인 his에서 /h/가 탈락된 경우이다. 오답을 적은 학생들은 “my, was”로 썼는데 이들은 자신이 들은 어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 “from his”는 “from is”로 적었는데 /h/ 탈락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쓴 전형적인 오류



유형이다. 자음 탈락의 예로는 “saved six”에서 /v/음은 아주 약하게 발음되면서, /d/음이 뒤에 따라오는 자음 때문에 소리가 실현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saved”란 단어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sales six, says six, sell six”로 적었다. 또한 “pushed themselves”에서는 “put, push, themselves”를 적은 오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탈락의 경우에는 모음 탈락, /h/ 탈락, 자음 탈락이 학생들에게 듣기에 큰 장애를 주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학습해 온 축약형 탈락에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 3.3 지각 점수와 토의 듣기 점수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각 점수와 토의 듣기 성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SPSS로 처리해 본 결과 Pearson 상관계수가 0.9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 토의은 자연스런 연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지각점수와 관계가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림 1>은 이들의 점수 분포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적인 단어와 구문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일반적인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Dauer & Brown, 1992; Field, 2003)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는 연음 현상의 이해가 영어 듣기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듣기 향상을 위해 연음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여러 연구(윤정희, 2002; 김의순, 2002; 김한경, 2004; 정현철, 2004; 한안나, 1997)에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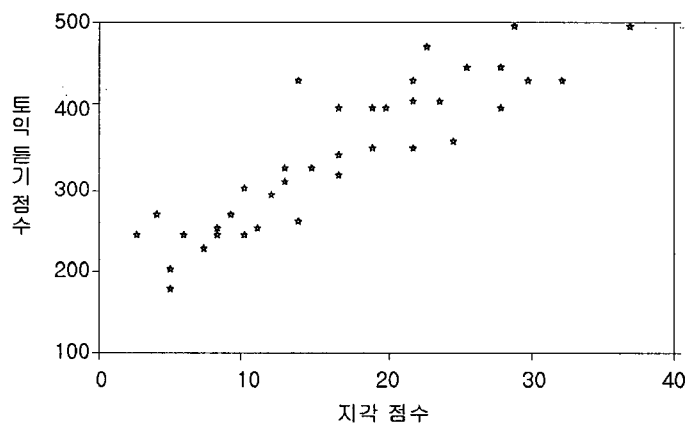


그림 1. 토의 듣기 성적과 연습된 문장 지각점수

학생들이 연음 학습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영어 연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할을 듣기 교육에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효과적인 듣기 능력의 향상을 가져 올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연음현상에 대한 많은 연습이 토의 듣기 점수를 향상시켜줄지에 대한 실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영어 문장을 연음하여 발음한 경우와 연음하지 않고 또렷이 발음한 경우로 나누어 39 명의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이들이 받아 쓴 단어를 각각 1 점으로 부여한 지각 점수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체 학생들의 지각 점수는 연음보다 비연음에서 높았다. 이는 평소에 연음된 영어 문장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의 듣기상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둘째, 토의 듣기 점수를 기준으로 나눈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 연음 점수가 비연음 점수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하위집단의 경우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은 탄설음화, 탈락, 구개음화, 재음절화 순으로 낮은 연음 점수를 받았다. 이 네 가지 연음 현상은 학습자들의 토의 듣기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상위집단은 탈락, 구개음화, 탄설음화로 비슷한 지각점수를 보였지만 재음절화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하위집단은 네 가지 음운 현상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각 연음 현상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집단은 재음절화에서 /r/+모음을 가장 어려워하였고, 구개음화에서 마찰성 구개음화와 파찰성 구개음화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하위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탄설음화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 단어 간 탄설음화 현상이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탈락에서 상위집단은 모음 탈락이 낮았고, 하위집단은 모음 탈락, 자음 탈락, /h/ 탈락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토의 듣기 점수와 연음 점수는 0.901이라는 높은 수치의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높은 상관계수를 감안한다면, 영어 연음이 토의 듣기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연음이 듣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토의점수와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음 학습에 더 많은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교재를 제작하거나 교사들의 연음 지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은지, 양병곤. 2003. "소음과 속도를 변화시킨 영어 문장 따라하기에 대한 연구." *음성과학*, 11권 2호, 105-117.
- 김의순. 2002. *대화문에 나타난 영어 연음 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준길. 1997. *한국어 화자의 영어듣기 장애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한경. 2004. *영어 대화문의 연음에서 나타나는 발음변화에 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남은화. 2003. *영어연음 현상의 이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석요. 1997. "빠른 영어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 연구." *영어교육*, 52(4), 265-285.
- 양병곤, 2005. "대학생들의 영어자음 인지 연구." *음성과학*, 12권 3호, 139-151.

- 유혜배. 2005. "영어 연음에 관련된 음운현상 인지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12(1). 273-293.
- 윤정희. 2002. *발화속도에 따른 영어의 후어휘 음운현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순범. 2003. *영어 발화의 재구조와 후어휘 음운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정경미. 2001. *중학교 교과서의 영어 연음 현상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및 학생들의 이해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철. 2004. *중학교 대화문의 발화속도에 따른 연음상의 발음 변화*.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한안나. 1997. *영어 연음 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Avery, P. & Ehrlich, S.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ailey, T. M., Plunkett, K. & Scarpa, E. 1999. "A cross-linguistic study in learning prosodic rhythms: Rules, constraints, and similarity." *Language and Speech*, 42, 1-38.
- Dauer, R. & Brown, S. 1992.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connected speech."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Vancouver, Canada.
- Field, J. 2003. "Promoting perception: Lexical segmentation in L2 listening." *ELT Journal*, 57, 325-334.
- Fuksawa, T. 2004. *A guide to perfect English pronunciation*. Seoul: Ulchi Munhwa.
- Simpson, A. 1992. *Interviews between native speakers and non-native speakers as material for listening compreh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r, P. 1997.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접수일자: 2006. 7. 21

게재결정: 2006. 8. 23

▲ 황선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우: 609-735)  
 부산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E-mail: durumi@hanmail.net

▲ 양병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우: 609-735)  
 부산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수  
 H.P.: 010-9618-7636  
 E-mail: bgyang@pusan.ac.kr  
 Website: <http://fonetiks.info/bgyang>